

## 40 철도건설업자에서 발생한 복막의 악성종피종

|    |    |    |     |    |          |       |    |
|----|----|----|-----|----|----------|-------|----|
| 성별 | 남성 | 나이 | 55세 | 직종 | 철도건설 감리직 | 직업관련성 | 높음 |
|----|----|----|-----|----|----------|-------|----|

### 1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철도궤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철도궤도현장 감리업무를 하였다. 퇴사이후 체중감소 및 소화불량이 지속되어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복수와 장벽의 비후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의뢰되었으며 대학병원에서의 조직검사 결과 복막의 악성 종피종으로 진단받았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외래 통원하며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못하고 2014년 4월 사망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10년간 철도궤도 공사업무, 약 15년 11개월간 철도궤도 감리업무를 하였다. 철도궤도는 도상의 형식에 따라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 지하철 건설시 적용된 자갈도상 궤도부설공법의 공정은 노반인수인계(중심측량)⇒레일운송 및 야적⇒레일용접(장척화)⇒장척레일 운반 배열⇒침목 운반 배열⇒궤광조립⇒테르밋트 용접⇒자갈 살포⇒양로 및 MTT작업⇒궤도정정 및 재설정⇒궤도틀림검사⇒시운전 단계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작업지시를 하며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공사과장은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관리감독을 위해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궤도감리원의 업무는 설계도서 내용으로 시공되었는지 검측을 통해 확인(감독)하고, 부적합시 보완 지시하는 업무이다. 세부 검측업무로는 레일 용접 완료후 용접부에 대한 각종 검사에 입회하여 품질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완성 궤도시설물의 각종 데이터(고저, 수평, 방향, 자갈량, 도상두께 등)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궤도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용접시 석면포를 사용하여 냉각시키는 작업 감독으로 일시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문헌 검토 결과 석면포 사용 사업장에서 0.01~11.4 f/cc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_석면)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3년 6월 경 속이 거북하고 몸무게가 감소하여 병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어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복수와 장벽이 두꺼워진 것을 발견하고 복부 CT촬영을 하였다. CT촬영 결과 복막의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조직검사를 통해 복막악성중피종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항암치료 등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2014년 4월 사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접촉성피부염, 외이도염, 고지혈증, 백선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고, 가족력 및 개인력 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87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간 철도궤도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약 16년간 철도노선현장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3년에 복막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 2014년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이 있다. 근로자는 1987년부터 궤도 건설업종에 종사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궤도 건설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사용한 석면포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

# Ⅱ

## 암 외 질환



